

이벤트 광고: 임핑 나이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행도 관통,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신제 실시



2008 시즌 결산

<1> 무너진 KIA의 꿈



지난달 4일 무등경기장에서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KIA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모여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겉으론 '호화 군단'...속으론 '부실 군단'

SK가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4승1패로 2연패를 달성하면서 2008 프로야구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3월29일 출발했던 2008 프로야구는 13년만에 500만 관중 돌파로 야구 역사를 새로 썼다. 8개월의 숨막힌 순위 싸움 속에 흥행몰이와 풍성한 기록행진이 이어졌던 올 시즌 프로야구를 되짚어 본다.

빅리거 서재응·최희섭·특급용병 리마 시즌 내내 부상·부진 허덕...팬들 실망

안방마님 김상훈이 4월10일 SK와의 경기에서 왼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팀은 7연패의 부진 속에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설상가상 개막 한 달도 안돼 리마, 전병두 2명의 선발이 부진속에 2군으로 추락했고, 전지훈전에서 왼쪽 헬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서재응도 5월17일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선발진에서 이탈했다. 장성호-나지완-최희섭으로 구성된 개막전 클린업 트리오도 오래 가지 못했다. 신인 4번타자로 주목 받았던 나지완은 이렇다할 활약없이 4월18일 2군행 짐을 싸고, 나홍록 고군분투하던 장성호는 손목 부상에 이은 녹골 부상으로 5월 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민اعت '빅쇼이' 최희섭도 5월 12일 요통으로 부상병이 됐다. 부상의 공포는 시즌 내내 KIA를 흔들었다. 이대진·윤석민·

Table with 5 columns: 순위, 구단, 승, 패, 타율, 평균자책점. Lists 8 teams and their statistics.

이용규·김원섭·디아즈가 부상으로 2군행 짐을 싸면서 전력누수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4강 희망의 꿈은 놓지 않았다. 포수 차일목의 성장세와 김원섭이 이끈 소총무대의 활약으로 14승 11패로 '5월 대반격'에 성공한 KIA는 6월 선발진의 붕괴속에서도 11승 12패로 6위를 지키며, 5위 삼성과 3.5게임차를 유지했다. '깜짝 스타' 이범석과 임준혁, 발테스 대신 영입된 디아즈의 활약을 바탕으로 4강 싸움을 벌인 KIA는 7월 31일 LG와의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6위로 전반기기를 마감했다. 47승50패, 4위와는 2.5게임차였다. 하지만 올림픽휴식이 KIA에게는 독이 됐다. 최하위 LG와의 하반기 첫 대결에서 2연패를 기록한 KIA는 결국 5승 15패를 추가하는 데 만족하며 롯데·삼성과의 4강 싸움에서 밀려났다. 공·수의 핵 서재응과 최희섭의 부진이

태극자매들 정상 탈환 실패

대만 캔디 쿵 6연더 우승, 한희원·장정·이지영 3위,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일 영종도 스키야드72코스에서 열린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서 3라운드 함께 6연더파로 우승한 캔디 쿵이 도자기 우승컵에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그랑프리 3연패 이상 無"

오늘 베이징 도착 ISU '컵 오브 차이나' 참가

김연아(18·군포 수리교·사진)가 베이징에서 2008-2009 시즌 두 대회 연속 우승과 더불어 그랑프리 파이널 3년 연속에 발판을 준비한다. 미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일 "지난달 그랑프리 1차 대회를 마치고 캐나다 톨론토에서 재훈련을 했던 김연아가 그랑프리 3차 대회 참가를 위해 3일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1차 대회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고치는데 열중했다"고 밝혔다. 대회 공식명칭은 2008-2009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3차 대회인 '컵 오브 차이나'. 김연아가 지난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두 개 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석권할 당시 첫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로 국내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지난해 '컵 오브 차이나'를 통해 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에 나섰던 김연아는 긴장을 많이 하면서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로 출발해 각정을 자아내게 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짐작한 연기로 역전 우승에 성공. '강심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년 만에 우승 메달을 지켰고 중국을 다시 찾은 김연아의 각오도 오직 승리뿐이다. 이미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에서 2위와 총점에서 무려 20점이 넘는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 메달을 차지했던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1차 대회에서 만났던 안도 마키(일본)와 함께 사라 마이어(스위스), 에슐러 와그너(미국) 등과 금메달을 다투게 되지만 경쟁자들의 최근 성적을 볼 때 큰 실수만 없다면 우승이 낙관적이라는 게 IB스포츠의 설명이다. 한편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적응을 맡고 있는 김연아는 6일 쇼트프로그램과 8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박찬호 FA 선언... "선발로 뛰고 싶다"



내년 선발 보직을 원하는 박찬호(35·LA다저스·사진)가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했다. LA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박찬호 등 9명이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 FA 등록을 끝냈다고 전했다. 박찬호는 지난해 12월 LA다저스와 1년

짜리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FA 자격을 얻게 됐다. 박찬호는 다저스와 우선 협상을 한 뒤 선발 기용을 원하는 다른 팀과 접촉할 수 있다. 올해 다저스에서 선발과 중간 계투를 오가며 54경기에서 4승4패2세이브, 평균자책점 3.40을 기록한 박찬호는 내년엔 팀을 옮겨서라도 선발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선발이 필요한 팀에서 원한다면 가고 싶다"며 "다음 시즌에는 팀을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저스에서는 올해 선발로 뛴 데릭 로, 마무리 그레 맥덕스, 박찬호 등 9명이 FA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SK 김광현 "내가 MVP 1순위"

다승·탈삼진왕, 팀 KS 우승 주역... 두산 김현수 보다 유리

KBO 출입기자단 투표로 6일 결정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2연패로 마무리된 프로야구는 시즌 대미를 장식할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왕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MVP와 신인왕이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올해 MVP 후보는 김광현(SK)과 김현수(두산), 카림 가르시아(롯데), 김태균(한화), 윤석민(KIA) 5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것은 정규리그 2관왕과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던 2년차 원투수 김광현이다. 정규리그 다승(16승)과 탈삼진(150개)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한 김광현은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윤석민에게 평균자책점 1위

들어섰지만 모두 병살타로 물러나며 눈물을 흘렸다. 가르시아는 한국 무대에서 맞은 첫 시즌에서 타점 1위(111개)에 올랐지만 시즌 마지막 홈런 경쟁에서 김태균에게 밀려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김태균과 윤석민은 각각 홈런과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따냈지만 팀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최우수신인선수에는 삼성의 7년차 중군 신인 최형우의 최고령 신인왕이 점쳐진다. 투수 유원상(한화)과 외야수 손광민(롯데), 내야수 김선빈(KIA)과 강정호(히어로즈) 등이 함께 신인왕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최형우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투수는 6일 오후 2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뤄지며, 유효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선정된다. /연합뉴스